

WKPC 총회 연합기도회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장 정우용 목사, 이하 WKPC)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던 지난 10월 25일을 총회 기도 주일로 선포하고 지교회에서 교단 본부까지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의 손을 올렸다.

WKPC는 지난 10월 29일 필라델피아 동지교회(담임 김정도 목사)에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대하7:14)라는 주제로 총회 주관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회개 △미국의 치유와 회복 △한국의 치유와 남북의 평화통일 △COVID19의 종식 △총회와 지교회의 부흥과 성장 △선교사 가정과 사역 등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날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총회장 정우용 목사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WKPC는 개혁주의 교회론의 터 위에 기도하는 총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총회 연합 기도회가



필라델피아 동지교회에서 진행된 세계예수교장로회(WKPC) 총회연합기도회

회개와 각성,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현장과 줌으로 진행된 기도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했으며 1

부 예배와 2부 기도회로 이어졌다. 1부 예배는 준비 위원장 김성길 목사(회록서기/ 주사랑교회)의 인도로 김정도 목사(필라델피아 노회)의 기도회 이어 홍용천 목사(갈보

리교회, 뉴욕노회)가 성경봉독(마 16:16-18)을 했다.

기도회는 김근 목사(예수사랑교회, 필라교협회장)의 회개 기도를 시작으로 조명천 목사(열린장로교

회, 워싱턴 노회)가 미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재광 목사(크로스선교회, 부서기)가 한국의 치유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김상근 목사(교회, 뉴욕서노회)가 COVID19의 종식을 위해, 박등배 목사(서마나교회, 뉴욕노회)가 총회와 지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교단총무(육영철 목사, 페어필드한인교회)의 광고에 이어 ‘부흥’을 다함께 부른 후 국남주 목사(새생명교회, 뉴욕서노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우용 목사는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에 맞춰 시작된 총회연합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를 경험한 교회가 현재 상황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참으로 의미 있는 기도회였다”고 평가하고 “기도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위탁가정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주세요”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11월 한 달 동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캠페인

은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받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구입한 뒤, 12월 12일 열리는 온라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위탁가정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한인가정상담소 소셜워커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가 증가됨에 따라 위탁가정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위탁아동이 많이 발생 되었다. 한인가정상담소 위탁프로그램에는 특히 영유아 위탁 케이스가 많이 증가되었다. 이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따뜻한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의 ‘크리스마스 위시

리스트’에는 장난감이나 학용품, 축구공, 스쿠터, 아마존이나 타겟 상품권 등이 들어 있었다. 학교 수업을 위해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고 말해주는 아이도 있었으며, 학교 통학용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한인사회 후원으로 위탁가정 아이들이 막연히 품고 있던 꿈들이 현실이 되기도 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피아노가 없다는 아이도 있었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재봉틀이 필요하다고 했던 아이도 있었다.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자 이들의 꿈을 후원하고 싶다는 후원자들이 등장, 자신의 꿈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 경우도 있었다.

캐서린 염 소장은 “연말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전해 주셔서 지난 5년간 위탁가정 아이들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개인 수표를 한인가정상담소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후원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 위시리스트에 미리 등록된 물품을 선물로 보낼 수도 있다. 문의는 김지나 소셜워커 213-235-4867, jinakim@kfamla.org 로 하면 된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버춰 콰이어' 로 성탄절 찬양

성탄절 찬양 연주회 참여 대상 확대 찬양 영상 제작으로 지역 교회 섬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탄 기대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예배로 많은 교회가 예배 시간에 이전처럼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이 가능한 교회는 버춰 콰이어(virtual choir)로 대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 찬양을 대체할 방법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교회의 큰 절기인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어 찬양 영상으로 지역 교회를 섬기고자 합

니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특별한 ‘성탄 축하 찬양’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성탄절에 주옥 같은 찬양으로 남가주 지역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상 찬양대를 모집해 찬양예배를 마련한다. 또한 연주의 참여 대상을 확대해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찬양이나 악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미 회장은 “매 해마다 많은 찬양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 하였지만 올해 성탄절은 개인이 찬양해 녹화한 영상을 모아서 ‘가상 찬양대’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됐다”며 “그 어느 때 보다 풍성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 회장은 또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



전현미 지휘자

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주셔서 아직도 호흡을 하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 하는 찬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올해 찬양은 지난해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학생 찬양 경연대회’에서 기악 부문에 우수한 학생들 및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와 함께 한다. 찬양대원이나 또는 악기(바이올린, 첼로)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 310-381-9835 또는 이메일 hchon@ucla.edu 로 문의하면 협회에서 준비한 반주 영상과 악보를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을 찬양 하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

“이스라엘 절기 2021년 탁상용 달력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이벤트 선착순 100명

GMU 2021 Calendar Giveaway
이스라엘 절기 GMU 탁상용 2021 달력 무료배송 이벤트

- ✓ GMU 학교 정보 신청하기
<https://www.gm.edu/request-information>
- ✓ GMU 학교정보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 GMU 탁상용 달력을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선착순 100명 한정.

그레이스미션대학교(최규남 총장)가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 GMU 탁상용 2021년 달력 무료 배송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착순 100명. 이번 이벤트는 학교 정보 신청 사이트(www.gm.edu/request-information)에서 학교 정보 신청 신청하면 GMU 2021년 탁상용 달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는 현재 미 연방 교육국 USDE가 인

정 학위 인가기관인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로서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과 연방정부 학비보조인 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학위 과정으로 대학부과정으로 신학학사(BA), 상담학 학사(BACC) 학위 과정이 있으며 대학원에는 기독교 상담학석사(MACC), 기독교 교육학석사(MACE), 선교학(교차문화학) 석

사(MAICS), 목회학석사(M.Div) 학위과정도 있으며 박사과정으로 선교학박사(DMiss)학위와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과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www.gm.edu와 전화 714 525-0088 또는 이메일 admissions@gm.edu로 문의할 수 있으며, 학교 웹사이트 라이프 채팅과 화상 입학 인터뷰를 통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한미크리스찬문인협회 동계 크리스찬 신인 문인상 공모

한미크리스찬문인협회가 동계 크리스찬 신인문인상을 공모한다. 응모 부문은 시 5편, 시조 5편, 수필 3편, 칼럼 3편, 에세이 3편, 단편 소설 2편이며 원고 내용은 신앙적이어야 하며 어디에도 기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기독교인으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있는 자만 응모할수 있다. 만약 이단이나 성경에 위배된 사람으로 확인되면 당선되더라도 취소되며,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한다. 제출은 이메일로만 접수하며 (kacla07102020@gmail.com) 글을 쓰게 된 이유와 배경을 부연 설명하고 자신의 신앙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당선작에는 소정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자들은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원고 마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며 발표는 2021년 1월 중 개별 통보한다. 시상식은 2021년 1월 예정이다. 협회는 “글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며 “글로 자신을 표출하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권면과 위로, 도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한미크리스찬문인협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정식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1년에 4회 신인상을 공모해 기독교 문인 발굴과 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협회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매달 정기 모임을 재개할 예정이다. 문의) 213-422-8916 한미크리스찬 문인 협회 회장 최순길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www.marhlaw.com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선택 : 트럼프 76%, 바이든 23%

지난 4일 발표된 2020년 미국 대선 예비 출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선거에 비해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약 4% 포인트 하락했지만 가톨릭, 개신교, 흑인, 라틴계의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기타 현지 언론 매체의 조기 출구 조사 데이터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투표율이 76%를 기록한 반면 전 부통령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투표율은 2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6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투표율은 80-81%를 기록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백인 복음주의자와 기독교인 유권자 가운데 16%만이 2016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투표했다고 대답했다.

입기 내내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 기반이 되었다. 한편 바이든 후보 캠페인은 최근 몇 달 간 복음주의 신앙 기반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CP는 보도했다.

이번 출구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지난 2012년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백인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득표한 비율과 비슷하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백인 복음



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조니 무어 목사 트위터

주의자들에게서 78%의 투표율을 얻었다.

또한 2020년 예비 출구 조사 결과는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후보가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서 얻은 득표율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렸음을 시사한다고 CP는 전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출구 조사는 예비적인 결과이며 더 많은 설문조사가 분석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조사는 미 전역의 출구 투표 결과로서 지난 3일 투표소에서 나온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택해 인터뷰한 결과다. 설문조사는 에디슨 리서치가 실시했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정치학 조교수 라이언 버지는 지난 4일 CP에 "출구조사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투표율에 대한 상당히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율) 약 76-77%의 비율로 나타난 것을 여러번 보았다. 지난 2016년 의회 협동 조합 선거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77.4%의 지지율을 얻었다. 출구조사에 존재하는 문제는 복음주의자에 대한 자기 식별 질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포본에 유대인, 무슬림, 가톨릭, 불교도들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버지 교수는 "응답자의 복음주의적 정체성을 결정하기 위해 더 나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하며 출구 조사가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조기 출구 조사 결과에 대해 건전한 의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보수단체인 신앙과 자유

연합(Faith & Freedom Coalition)을 이끄는 보수 성향의 복음주의 활동가인 랄프 리드(Ralph Reed) 역시 출구 조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미국 대선일에 POS(Public Opinion Strategies)가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인식하는 유권자의 81%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고 14%만이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했다. 신앙과 자유 연합에 따르면 2020년 조사에서 복음주의자는 전체 유권자의 27%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1% 증가했다. 설문 조사의 오차 범위는 3.46%다.

랄프 리드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단체가 후원한 조직의 조사 결과와 출구 조사 결과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네트워크 출구 조사가 우

리만큼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자들에게서 76%의 투표율을 얻었다면 미트 롬니 후보보다 실적이 저조한 셈이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설문 조사를 통해 (백인 복음주의자) 유권자 가운데 몇 퍼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 76%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주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서 85%에서 86%의 득표율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인 복음주의자들을 제외한 다른 기독교 신앙인들의 경우, 예비 출구 조사 결과 가톨릭과 개신교인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약 1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가톨릭 신자의 62%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고 37%만이 바이든 후보에 투표했다. 2016년 출구조사에서는 가톨릭 신자 가운데 50%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2020년 출구 조사에 참여한 개신교 및 기타 기독교인 유권자의 약 68%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대답했고 31%는 바이든 후보에 투표했다고 대답했다. 지난 2016년에는 개신교인과 다른 기독교인 유권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대답했고 39%는 클린턴 후보에 투표했다고 답했다.

이미경 기자

미주한인 애국인교회 창립예배 드려

미주한인 애국인교회(담임 심진구 목사 1569 W. Redondo Beach Gardena CA 90247)가 지난 22일, 창립 예배를 드리고 사역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예배는 심진구 목사의 사회로 이호우 목사(OC교협 이사장)가 기도하고 지경 교수가 특송으로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를 불렀다. 이어 미기총 대표회장 민승기 목사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예레미야 7장 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 지용덕 목사(연세아카데미 원장), 김종용 목사(미주크리스찬대학교 총장), 이정현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가 각각 축사를 하고, 장상근 교수의 축송에 이어 장광춘 목사(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미주한인 애국인교회 창립예배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의연하지 않았다.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종원목사(예수전도단), 송정명목사(복음전도 운동대표), 권준목사(주빌리미주대표), 신정원목사(복음전도 대표), 유관지목사(홍익미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 영의 책은 아메리카로 주물랄 수 있습니다. \$20/권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늘을 의연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81

“터키 이즈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다”

지난달 터키의 서부 바다인 에게해에서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여 터키 서부와 그리스 남부지역 및 주변 섬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터키 서부 항구 도시인 이즈밀의 피해가 컸다.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의 파송 선교사 가정들과 대학생 선교사 그리고 단기선교팀들이 나가 있는 상태에 지진 소식이 들려서 더욱 걱정이 컸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지진으로 선교사들의 인명피해는 없고 다만 가옥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의 지진 이어서 선교사들도 각기 자신들의 현지인 친구들(선교 대상자)의 안부와 가정 피해 등을 알아보느라 정신없이 지낸다 했다. 남성 선교사들은 거주지 지역의 무너진 건물 쪽에 가서 구조 작업을 돕는 이도 있고, 여성 선교사들은 피해를 입은 가정에 가서 부녀자들을 돕고 물과 의료품들을 나누면서 지낸다 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심을 확신했다고 했다. 가정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방문하여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고 그들에게 생수통을 나눠주고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의 손을 잡아 주며 같이 기도해도 되냐고 물을 때 오히려 그들은 두 손을 꼭 잡으며 “신의 가호를 빌어주세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이즈밀의 영혼들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희망으로 일어설 것을 믿는다고 선교사들은 전했다.

필자는 이즈밀에서의 추억이 있다. 2010년에 에베소 광장에서 “에베소 연합 중보기도회”가 있었다. 약 2천 명의 기도자들이 미국, 한국, 터키 현지 크리스천들이 모여 큰 광장을 가득 채우고 기도집회를 했다. 그 집회를 마치고 필자는 3일의 시간을 따로 내어 이즈밀 도심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즈밀 도심 한가운데에 이르렀는데 그리스 정교회 같은 건물을 만났다. 그 건물을 돌아 정문 앞에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 하나인 “서머나 교회”였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성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현판에 쓰여 있었다.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며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요한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천정 앞에서 2천 년 전 성경속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너희가 심일동안 환란을 당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하시며 부활하신 예수께서 축복하셨던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견재하고 있는 땅. 그 이즈밀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다. 이즈밀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즈밀은 다시금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될 것을 굳게 믿는다.

이즈밀은 터키에서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사도바울 당시 에베소가 바로 이즈밀 지역에 있다. 필자도 여러 차례 이즈밀 도심에서 복음을 전하며 만났던 수많은 영혼들이 기억난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지만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객의 수가 많이 줄어서 관광객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숙박업소와 식당, 그리고 상점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진을 당해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이 되고 혹시나 어려운 선교 사역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도 염려가 되었다.

그러던 중 지진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반가운 기적의 소식들이 전해져 왔다. 제일 먼저 들려온 소식은 무너져 내린 아파트 잔해 속에서 생존자들이 구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절망적이었던 이즈밀 시민들에게 잔해더미 속에서 구조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한 줄기 희망이었다. 5살짜리 여자아가 마침내 구조되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며 모두가 눈시울을 적셨다. 터키인들은 무슬림이므로 알라를 찾으며 감사했겠지만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발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장면을 직접 현장에서 본 선교사 한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죽어가던 저 영혼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7



바울의 고향 “다소(Tarsus)” 를 찾아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랑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그는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하생,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다소(Tarsus)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수차례 다소에서 태어났음을 자랑합니다(행21:39, 22:3). 바울의 출생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예수께서 탄생하신 몇 년 후에 다소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그의 고향 다소를 알아야 합니다. 다소는 선사시대에 건설된 고도(故都)입니다. 6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다소는 주전 3000년경에 요새화됩니다. 이 도시는 육로만 아니라 키드누스강의 하류에 있는 항구를 이용한 해로도 있어서 주전 2300년경 트로이의 초기시대에, 해안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주전 2000년경 히타이트 제국 시대에 다소는 그 중요성이 좀 더 평가받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길리기아 키주와트나(Kizzuwatna) 국으로 등장했을 때, 다소는 ‘타르사(Tarsa)’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도시 역할을 합니다. 그 후 다소는 지중해의 해양 교통과 터키의 내륙 교통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하며 무역과 상업의 도시로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성장해온 다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날 즈음엔 로마 제국 길리기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고, 여전히 교통과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다소는 길리기아 평원과 키드누스(Cydnus)강 덕분에 낙농업이 발달했고, 생산된 염소 털과 염소가죽이 특산물이었으며 텐트 산업이 성행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사도 바울 아버지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며 선교한 것은 고향 다소의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소는 중요한 교육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장할 때 다소에는 저명한 스토아학과 철학자 아테노도로스가 활동했는데 그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Au-

gustus Caesar, 27-14 재위)의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Tiberius, 14-37 재위)였는데 그가 친히 임명한 자신의 스승 네스토르(Nestor)가 다소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명한 웅변가 요 철학자인 키케로가 다소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다소는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 속에 학문을 꽃피웠던 스토아 도시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다소 출신 철학자들은 스토아학파의 안티파터(Antipater), 라키데머스(Rachidemus), 네스토르(Nestor), 아테노도로스(Adenodorus), 말커스 카토(Marcus Cato) 등이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들이 다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의 스승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고, 아테노도로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스승이었고, 네스토르(Nestor)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명성적으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스토아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에 스토아 철학의 도시 다소를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3대 교육도시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많은 교사(철학자들)로 유명했고,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과 대학 건물이 좋아 유명했고, 다소는 교육결과 교육환경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역사 지리학자 스트라본은 당시 다소의 문화적 수준은 아테

네와 알렉산드리아에 대등했다고 합니다. 다소는 일반 시민들의 교양과 지식수준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다소는 스토아철학이 보편화 되어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다소 시민들의 일상 대화에서 인용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소 시민들의 지적 수준과 철학적 소양이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다소가 이런 스토아철학에 대한 소양이 높은 도시였다는 것은 바울이 스토아철학에 친숙했을 것을 암시합니다. 훗날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을 만날 때 그의 스토아철학의 소양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여러 철학자의 경구와 시를 인용하면서 아테네 철학자들을 설득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다소를 얘기하면서 클레오파트라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원전 41년에 마크 안토니오는 빌립포 싸움에서 승리하자 반대편을 도왔던 클레오파트라에게 따지려고 다소로 불렀습니다. 반면 클레오파트라는 줄리어스 시이저를 유혹하여 자신의 보호자로 삼았으나 그가 암살당하자, 안토니오 장군을 유혹해 자신의 보호자로 삼으려고 다소로 찾아갑니다. 역사가 플루타르크(Plutarch)는 안토니오를 유혹하기 위해 다소에 도착하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을 황홀하게 묘사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매혹된 안토니오는 그녀를 꾸짖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나톨리아의 광대한 해안지역을 그녀에게 주며 구애합니다. 두 사람은 다소에 몇 달간의 밀애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다소에는 중요한 유적 관광지로 바울 태어나 자라며 마신 바울 생가 무덤이 있습니다. 아울러 클레오파트라의 다소 방문을 기념하는 클레오파트라의 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바울 기념교회가 도시 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소를 살피면 살필수록 바울을 다소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에 무릎을 꿇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코어와 빈곤 인종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교회언약 사상

김재성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미국 동북부 지방을 “뉴잉글랜드”라고 부르는데, 뉴욕의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캐나다와의 국경이 가까워지기까지, 아름다운 산맥과 울창한 숲, 거대한 경작지들과 농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광활한 대지 위아래가 맨손으로 농장을 만들고, 새로운 터전을 일궈나갔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명감과 근면과 의지가 없었다면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초기 건국의 조상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친 날씨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견뎌냈다. 이 지역은 겨울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린다. 다섯 개가 거대한 호수들 주변 지역에서는 10월이 되면 이미 겨울이 시작해버린다. 봄과 가을은 눈부시게 아름답다.

초기 청교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의 역사와 유래에서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1년 이내에 절반이나 사망했다. 원주민들이 농사하는 방법과 뱀장어를 잡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서, 첫 수확에

성공하였고, 생존할 수 있었다. 첫 수확으로 얻은 양식들은 이내 다가올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생명줄이었다. 청교도들은 소중한 양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원주민들에게 받은 칠면조 고기에다가, 자신들이 수확한 옥수수, 감자를 으갠 것, 푸른 콩, 크랜베리 열매, 겨울 호박 등을 먹었다. 특히 식후에 디저트로는 “팝킨 파이”를 각 가정에서 반드시 즐겨 만든다. 신앙적인 감사제가 이제는 그 지역의 문화로 정착했고, 지금까지도 아메리카인들은 조상들의 음식들을 기념으로 먹고 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기념일을 성대하게 지켰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국가 공휴일로 공포했다.

뉴잉글랜드 지방의 대도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소도시마다, 타운마다, 중심 교차로에는 어김없이 중후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다. 그 주위에는 초기 청교도들의 공동묘지가 보존되어 있다. 시내 한 복판 중심가에도 묘지가 있다. 청교도들의 초기 정착기에는 지금의 묘지 자리가 한산했을 것이다. 미국의 서부에서나, 남부 도시에서나, 중부지역 등,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뉴잉글랜드 필그림

신앙의 흔적들이다, 세월 속에 잠긴 초기 건국의 조상들의 헌신적인 삶의 자취들이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공동묘지에 새겨져 있다.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교회가 가장 먼저 중심부에 세워졌고, 그 주변에는 상가를 비롯한 도시의 중심부가 형성되고, 시청과 주요 관공서가 들어서 있다.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자 했고, 그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롭고 활기찬 나라의 꿈이 있었다. 모두 다 잉글랜드를 떠나온 청교도들과 건국의 아버지들이 땅과 정성을 바쳐서 건설해 놓은 것들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에 도착한 초기 청교도들이 성공적으로 건설한 도시가 보스턴이었고, 여기에 세계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교 등 많은 교육기관들을 세웠다. 코네티컷 주에 예일대학교를 위시해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명문대학들도 역시 대부분 청교도들이 세운 것이다. 이러한 인재들이 지난 사백여년 동안 위대하게 신앙의 꿈을 실현하면서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국가가 형성되었고, 전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

다. 마침내 1884년 9월 20일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빛이 어둠에 전파되었다.

뉴잉글랜드에서 청교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장소는 요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노스햄턴의 회중교회이다. 이 소도시의 중심부에 예배당을 기점으로 하여 확장되어진 전형적인 청교도 타운이었다. 서쪽 언덕 위에는 여자 대학으로 세워져서 손꼽히는 명문으로 성장한 “스미스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데,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흔적들을 만날 수 있다. 도시 입구의 거대한 묘지에는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포다드’를 위시하여, 에드워즈의 자녀들이 잠들어 있다. 지난날 청교도들의 꿈과 그 성취의 역사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또 다른 청교도 중심부 역할을 했던 교회는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주의 경계지방, 벅스 카운티(Bucks County)에 있던 윌리엄 테네츠의 교회이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겨왔던 수 백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의 뜰에 잠들어 있다. (the Neshaminy Cemetery, 1495 West Bristol Road, Warminster, PA 18974). 이곳이 “통나무 대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프린스턴 대학교”로 발전해 나간 청교도의 요람이었다. 테네츠의 네 아들 모두가 목회자로 성장했고, 그들은 에드워즈와 함께 1734년부터 전개된 “대각성 운동”에 기여하였다. 에드워즈는 확장된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부임해서 이곳에서도 설교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질병에 걸려서 55세에 사망했다.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sec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프랭클린 그래함 “바이든 승리하면, 기독교 기업 공격받을 것”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빌리 그래함복음주의협회(BGEA) 회장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독교 기업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31일 뉴스맥스의 ‘아메리카 라이트 나우’(America Right Now)에 출연한 그래함 목사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와 민주당이 상원 장악이 신앙과 종교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 바실(Tom Basile) 진행자가 “역사상 종교 자유와 양심의 권리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정부는 아마도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하자, 그래함 목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기독교 기업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 두렵다. 동성결혼식에 꽃을 제공하지 꽃집은 폐업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많은 기독교 소유 기업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사에 참여를 거부하여 소송에 직면했고, 동성결혼식에 케이크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고 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플로리스트인 배론넬 스투츠만(Barronelle Stutzman)은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

에 따라 동성결혼식을 위한 꽃 제공을 거부했다가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콜로라도의 제빵사 잭 필립스(Jack Philips)는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기도 전인 2012년,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공을 거부한 혐의로 유사한 소송에 직면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한 필립스는 성전환 축하를 위한 케이크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시 법정에서 출두했으며, 워싱턴 대법원은 주가 스투츠만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벌금 지불을 강요한 이전 결정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함 목사는 “좌파는 기독교 구호단체, 사회적 사업 활동을 하는 교회, 면세단체들을 나라에서 쫓아내고 싶어할 것”이라고 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서 결혼이라는 성경적 정의를 따르는 단체와 교회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면세 지위 철회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인 베토 오루크(Beto O'Rourke)는 “대학, 교회, 자선단체와 같은 종교기관이 동성결혼에 반대할 경우, 비과세 지위를 잃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완전한 인권과 시민권을 부정하는 미국의 어떤 조직도 보상이나 혜택,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64년 민권법의 보호를 성소수자 공동체로 확대하는 법안인 평등법은 ‘성지 지향’과 ‘성 정체성’을 연방에서 인정하는 시민권으로 분류하여 보호하지는 법안으로, 지난해 3월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이 발의했다.

평등법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래함 목사는 지난해 7월 ‘디시전 매거진’(Decision Magazine)에 기고한 글에서 “이 법안은 종교적 소수자들이나 여성들과 동일하게 성소수자 공동체의 시민적 권리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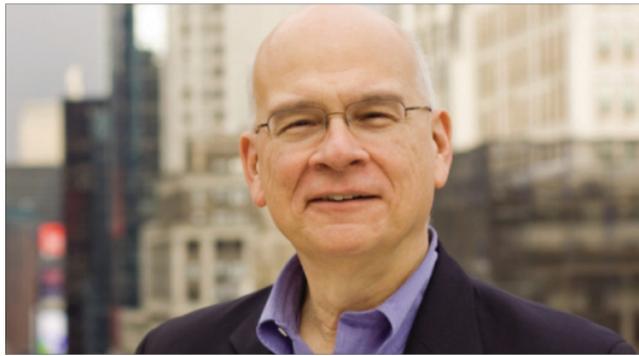
그래함 목사는 “만약 민주당 의

원들이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하면, 이 발의안은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진보적이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 발의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거침없는 그들의 행보를 막고 있다. 만약 상원의 다수가 변경되거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발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만약 2020년까지 백악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다면, 이 발의안이 미국의 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래함 목사는 “이 법안은 교회를 비롯해 신앙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 기관이나 경쟁 스포츠 종목에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나 기독교 비영리기관은 성경적인 신앙고백에 따라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모든 법적 보호를 잃게 될 수 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동성애나 낙태죄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의심할 바 없이 ‘혐오 표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경 기자

팀 켈러 목사 취장암 호전 “모든 찬양 주님께”



팀 켈러 목사 ©A. Larry Ross Communications

최근 취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미국의 팀 켈러(Tim Keller) 목사가 투병 과정 중에 일어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6일 전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취장암 치료 기간 중 기도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그 기도 응답해주셔서 지난 2일 CT 촬영한 결과 증상이 호전됐다. 주치의는 내게 비교적 작은 부작용이 있지만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화학 요법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치유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기뻐했다”고 전했다.

팀 켈러 목사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의료수단을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와 그의 아내 케이스가 이 기회를 이용해 이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가족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다.

팀 켈러 목사는 지난 6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셨다”고 밝히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린다”라고 글을 적었다.

을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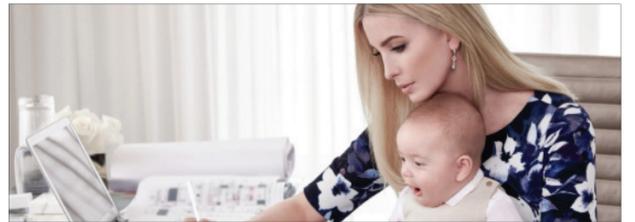
한편, 팀 켈러 목사는 지난 2002년 갑상선암으로 투병한 바 있다. 그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Uncommon Ground)이라는 저서를 발표했다. 이 저서에서 팀 켈러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그들 주변의 분열된 세계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올 초 CP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통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시험은 몇 달 후,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드러났을 때 올 것”이라고 말했다.

팀 켈러 목사는 세속주의자와 기독교인 모두 미국 역사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속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공헌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반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노예제나 인종차별과 같은 불의가 존재함에도 과거에 대해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이방카 트럼프 “‘프로라이프’(prolife) 운동 강력 지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Twitter/Ivanka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강력하게 ‘프로라이프’(prolife) 운동을 지지하며 부모가 된 것이 이같은 결정에 심오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방카는 최근 리얼클리어폴리티क्स(RealClearPolitics)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논의의 모든 측면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또한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고, 부모가 되어 이러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확실하게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방카는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라면서 “민주당원들은 낙태문제에 대해 너무 좌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리얼클리어폴리티क्स는 전했다.

현직매체인 ‘슬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방카는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이방카는 미국 최대 낙태 제공 업체인 ‘플랜드 페어런후드’를 만나 이 단체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연방기금을 받을 수 있는 낙태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미경 기자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력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ATS정회원 ABHE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신학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신학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3020 Wilshire BL)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Pell Grant) 및 켈리포니아 학비보조 (Cal Grant)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이벤트 1 11월 Early Bird 장학금

특별히 11월 한달동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와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12월 입학허가시 \$300불)

이벤트 2 화상입학설명회

■ 일시 및 시간 : 10월 29일(목) 오후 4시
학교 홈페이지의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 (gm.edu/online)
Zoom Interview : 726-399-1642 / pw: 2020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입학 문의 : 714-525-0088(대표)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복음주의자 마틴 휘톡(Martyn Whittock) 목사는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복음주의자들은 계속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신앙과 정치 간 상호 작용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휘톡 목사는 지난 1월과 6월 영국과 미국에서 '트럼프와 청교도: 복음주의적 종교 우파는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에 임성시켰나'(Trump and the Puritans: How the Evangelical Religious Right Put Donald Trump in the White House, 제임스 로버츠 공저)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칼럼에서 휘톡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며 이 같은 현상이 분열된 사회와 우익 정치 및 기독교 원리가 혼합된, 교회의 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휘톡 목사의 칼럼 전문.

이번 미국 대선은 심하게 분열된, 치열한 경쟁이었다. 마침내 바이든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를 확보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에 도전하고 있다. 소송은 극도로 양극화된 국가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는 승자가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트럼프가 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초여름 트럼프의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인종적 혼란이 미국을 뒤흔들면서, 이 지지는 약간 흔들렸다. 그러나 그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는 원대로 돌아갔다.

2016년 미국 대선 때는 복음주의자들 중 81%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대선의 경우, 에디슨 리서치가 전국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 실시한 출구조사의 예비 추정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76%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P 통신의 보트캐스트(Vote Cast)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수치는 78%로 약간 더 높았다.

이 같은 지지는 여름부터 구축돼 왔다. 10월 초 퓨리서치센터와 워싱턴포스트/ABC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는 78%에 이르렀다. 대선 전 주말까지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

search Council, FR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보수 기독교인으로 분류된 이들 가운데 96%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지지는 91%였다). 이 단체는 유권자의 1/10에 불과한 수치지만, 복음주의 공동체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특정 그룹의 높은 투표율은 그들의 실제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복음주의자들과 우익 정치를 엮은 구조적 패턴의 최선의 표현일 뿐이다. 미국이 극도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라. 그러나 그가 이처럼 헌신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적 대법관 지명(현 낙태법 폐지 가능성 포함), 총기 사용 권리 지지, 과학 경시, 이스라엘을 향한 특정 형태의 정치적 지원, 미국 민족주의, 봉쇄령보다 경제 회복 약속, 복음주의 공동체를 향한 뚜렷한 호소 등이 그의 개인적 행동, 코로나19 사망률, 인종 간 불의, 기후 변화 위기, 국제적 의무에 대한 경시, 심지어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사적인 조롱보다 훨씬 더 컸다. 후자의 문제들은 다른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 경시되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많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다.

많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 발전을 사건에 대한 신성한 지지의 표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은 현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트럼프가 과거에 이룬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증거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세상의 타락한 본성을 강조하려는 다른 복음주의자들에게, 트럼프 현상은 분열된 사회와 우익 정치와 기독교 원리가 혼합된 교회의 한 부분을 거울같이 비추고 있다.

트럼프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를 이끌어 온, 그리고 더욱 악화된 미국의 깊은 양극화는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하고 골치 아픈 유산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특정한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같은 문제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시킬 것인지도 트럼프 통치의 문제적 유산이다.

강혜진 기자

프랜시스 찬 목사 "미국 복음주의자들.. 가장 큰 실수, 수에 집착"

베스트셀러 작가인 프랜시스 찬(Francis Chan) 목사가 미국 복음주의자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6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찬 목사는 최근 전 세계의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함께한 줌(Zoom) 회의에서, 미국의 교회가 분열의 원인이 되고 명성에 흠을 내는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찬 목사는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수에 집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들이 너무 정치와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만든, 우리들의 심각한 잘못들이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분열돼 있고, 미국 내 복음주의자들의 명성이 지금보다 좋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복음주의적'이라는 단어가 위축되었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면서 "(복음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상관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부 정치적 그룹으로 여겨지고 있다. (복음주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나빠진 적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찬 목사는 "미국교회는 예배 참석자수에 너무 집착한다. 목회자들은 의미 있는 관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능한 더 많은 이들을 교회로 오게 하려고 패닉에 빠져 있다"면서 "이것은 성경적인 모델이



프랜시스 찬 목사. ©프랜시스 찬 목사 페이스북

아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들이기 위해 복음과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 어디에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헌신을 희석해 수천 명을 거느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며 "더 나아 보이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강혜진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회침례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공공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일 아침 살 공부 오후 7:00
토요일 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인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금)
3부예배(저세대에) 오전 11:30 (토, 일)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하고 이민2세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수,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눔과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쪽쪽 우회)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수) 오전 5:30
리셋에델만예배(소매점)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수) 신묘노키 만민부 지역 유일할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수)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찬양할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아침) 새벽예배 오후 8:00
종교개혁 주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밤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찬양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MP리제물 335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수요일 새벽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성령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936-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주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주종교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나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문·구타·공개처형 등
北 기독교 탄압 극심



단편영화 '상철:북한(Sang-Chul:North Korea)'의 한 장면.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 캡처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 미국 지부는 1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IDOP)을 맞아 북한의 종교 탄압을 주제로 온라인 행사를 열었다.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 오픈도어즈 미국 대표는 이날 "북한 내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돼 있다"며 잔혹한 기독교 탄압 실태를 우려했다.

북한은 오픈도어즈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19년째 1위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박해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출신 티모시 조씨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13살 정도였을 때, 북한 기독교인들을 중국 내 선교사들의 교회로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은 사람이 공개처형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북한 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굶주림, 박해, 불의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매일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됐던 그는 "당시 비좁은 방에 50명 이상과 함께 수용됐었다"면서 "고문, 구타 등 잔혹한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했다"고 덧붙였다.

오픈도어즈는 지난달 23일 익명의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5~6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매일 30분씩 시행하던 지도자 우상화 교육을 90분으로 늘리는 등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공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절반 가까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 역시 지난달 말 발간한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1990년부터 기독교와 무속신앙 등 종교집단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 273건 중 215건이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탄압이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6월 '2019년 연례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미북 간 완전한 관계 정상화에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을 탈출하다 붙잡혀 4차레나 구금

강혜진 기자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코하람 테러로 기독교인 12명 사망



©Pixabay

나이지리아에 북동부 지역에서 보코하람(Boko Haram)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목회자 등 기독교인 12명이 살해되었다고 AP통신, 크리스천 포스트 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 오전 보르노 주 치북 인근에 다쿨라시 마을에서 발생한 테러로 최소 12명이 숨졌으며, 모닝스타 뉴스는 희생자 중 한 명이 '네이션스 그리스도교 교단(Christ in Nations denomination)'의 목회자이며, 9명은 네이션스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밝혔다.

다. 이 마을의 지도자인 आयुबा अलामसन(Ayuba Alamson)은 이번 습격으로 인해 마을의 약 70여 채 가옥들이 불타고 밝혔다.

이번 테러는 2014년 4월 보코하람이 치북의 한 공립학교 여학생 276명을 납치한 장소에서 15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당시 납치된 여학생들 중 100명 이상은 6년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하다.

보코하람은 10년 넘게 나이지리아 북동부와 차드 호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수천 명을 살해하거나 납치해왔다.

이 매체는 나머지 2명은 기독교 공동체의 조직원으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범들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 주민인 이사쿠 무사(Ishaku Musa)씨는 무장한 괴한들이 중전차 3대를 타고 마을에 도착하여 무차별적으로 발포하며, 집들을 방화하고 식료품을 약탈했다고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으로 인해 북동부와 중부 지역에서만 34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초, 바르가나 우마라 줄룸(Ba-bagana Umara Zulum) 보르노 주지사는 보코하람의 수년 간의 공격으로 인해 5만 9311명의 고아와 5만 9123명의 미망인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또 그는 총격과 약탈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괴한들은 여성 3명과 어린이 4명을 추가로 납치했다고 제보했

김유진 기자

“한국, 매년 신규 HIV 감염자 폭발적으로 증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노형구 기자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김준명 교수(연세대 명예교수),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가 나섰다.

김준명 교수는 “2020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침구균네티름 등은 제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이들 또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사업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자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매년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HIV 감염자가 1,000명 이상 돌파한 이후로, 2019년에는 1,200명 이상 발생했다. 또한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 20대에서 발생이 35% 이상으로 급증했다. 10대까지 포함하면 40%에 육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 접촉임을 보고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서 HIV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 간 성 접

촉이며 전체 60%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경우가 70%를 넘었다”며 “더욱 놀라운 건 18~19세의 10대 만을 조사해보면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혀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HIV에 감염된 사람이 이성 간 성 접촉을 할 때 감염될 확률은 0.05%로 알려져 있다. 반면, HIV 감염인과 항문 성교를 할 경우 그 감염률이 1.4%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다시 말해 항문 성교 행위는 일반적인 이성 간 성 접촉에 비해 에이즈 감염 확률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국내 HIV 감염인 중 38.7%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2013년 이후 국내에서 매독과 신규 HIV 감염률 증가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두 질병 간 상관관계가 연구논문을 통해 제기돼 왔다. 실제 임상연구에서도 HIV 감염인에서 매독의 급격한 증가가 보고되어 왔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국내 HIV 감염인의 48%가 매독에 감염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이처럼 매독과 더불어 성기단순포진, 침구균네티름, 클라미디아 감염증도 최근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성매개 감염병의 연령대별 분포도를 보면 성적 활동이 활발한 20~30대와 함께 60대 이상 노인층에서도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이재훈 목사 “낙태와 제3의성, 하나님의 법칙 어긋나”



이재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온라인 예배

이재훈 목사가 8일 ‘참된 회개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느헤미야 9:1-6, 32-38)’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된 가운데, 온누리교회는 약 50%의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렸다. 전도 집회 및 특별 예배는 온라인 맞춤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배에 앞서 이 목사는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중에 감염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초기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들로 인해 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 없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확산된 것 때문에,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후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감염된 사례가 없으니 우리 성도들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기도할 때도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했다.

또 이 목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꾼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경시한다. 모태에 잉태된 어린 생명을 성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사망케 하는 낙태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남자와 여자 외의 제3의 성을 인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간의 편리와 문명의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앙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며 “전 세계적 위기 앞에 처해 있다. 우리가 경험한 어떠한 전쟁, 사회 위기보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으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지키며 인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헛된 우상과 이념, 거짓과 부정, 음란과 탐심이 문화가 되고 또 한 법제화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재난의 기간 동안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했다.

이후 그는 본문을 통해 “참된 부흥은 결코 예배당 안에 갇히지 않는다. 참된 부흥은 내 마음에 갇히지 않고 이웃으로 세상으로 확산된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초막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이것은 지시와 권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더 깊은 갈망이 일어난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또 읽고 싶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더 이어진다. 특별히 이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여졌다.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며 모여들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의 모습이다. 참된 부흥엔 참된 회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느헤미야 9장에는 3번의 사 이름이 나온다. 끊임없는 인간의 죄악과, 그보다 더 반복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마음이 풀려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처럼 기다릴 뿐 아니라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라고 했다.

이대용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점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새가족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요를 삼려 생애공평케 하니 그 생애를 복되게 하는 생애공평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하게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초·중·고등부, 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 오후 7시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운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5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벌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신자들로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찬양예배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전 1: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르겠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존중(尊重)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후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도 우리의 투표 권리는 존중 받아야 합니다.

요즘 주의해서 보는 사회적 현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사회가 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화/민주라고 하든지, 보수/진보라고 하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존했던 이 사회적 현상이 더 이상 타협이 불가능하여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의 대상으로 폭력을 일삼는 현상은 크리스천으로서 깊은 우려를 낳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나 편 가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결코 어떤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성경적 진리만 선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동성결혼처럼 특정 정당의 이슈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교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이 더 큰 복음적 가치를 위해 뜻을 합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태도와 말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황금률의 원칙입니다. 마 7:12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 선지자니라” 바로 존중의 원칙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을 받은 자들인데,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을 존중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의견을 남들이 잘 들어주기를 바라 듯 나도 남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내 말로 적어 보며 반대하는 사람의 최선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출 20:16)라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같이 보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언 킹>은 리더십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자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밀림은 황량해지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선한 사자 심바 Simba가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았을 때 죽음과도 같았던 대지에 생명이 다시 피어나고, 평화와 풍요로움이 이 밀림에 가득 찹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한 단체나 한 회사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나라의 미래요,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을 뽑을 때 후보들의 정치 철학과 그들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서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가족안에서도 갈릴 수 있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지지하는

휘트니스 센터와 야전병원!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을 하는 ‘학교’의 기능, ‘치유’를 하는 ‘병원’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휘트니스 센터’의 기능도 있습니다.

‘휘트니스 센터’는 매일, 열심히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영적인 훈련장소로서 다니면 다닐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영적 근육이 향상되기 위해 교회 안에서도 ‘근육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져가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 때 당시에, ‘병원도 병원 나름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은 요양병원입니다. 절망감이 가득한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또한 성도들이 계속 환자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브스를 하고 계속 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 나이롱 환자가 되어 퇴원하지 않는 모습!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을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퇴원하지 않는 환자가 되어 절망감 속에 누워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

교회가 병원이라면 ‘야전병원’이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잠시 누워는 있지만, 상처만 아물면 당장이라도 전쟁터에 뛰어 들어 갈,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치료 받는 곳, 그 모습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교회가 다니면 다닐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 ‘휘트니스 센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교회가 ‘절망감 가득한 병원’, ‘평생 나이롱 입원환자들의 병원’이 아닌,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회복시키는 영적 야전병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살이 잘 찌는 체질입니다. 거기에다가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고 잘 먹는 스타일이죠. 딱, 성인병 걸리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운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고 간단히 커피와 샌드위치로 아침을 먹고 난 뒤에 휘트니스에 갑니다. 30분 유산소 운동, 30분 근력운동을 한 뒤, 샤워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우리 교인들 중에는 저와 휘트니스 센터 동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30~40분 동네를 걷지요. 그렇게 해야 저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 운동량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 운동을 할 수 없으니, 점점 ‘확찐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먹는 것을 조금 줄이려 하고, 저녁에 아내와 평소보다 조금 더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휘트니스 센터가 언제쯤 열릴까?’ 생각하다가, 문득 교회는 ‘휘트니스 센터’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요. ‘교육’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초기 한국교회의 북방 선교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총회를 구성한 장로교회는 동쪽 선교에서 이제 해외에 나간 동포 선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만주(滿洲)는 중국의 동북 지방의 삼성(三省: 吉林, 遼寧, 黑龍江)을 가리킨다. 만주는 동쪽으로는 오소리 강, 서쪽으로는 외몽골, 남쪽으로는 요동반도 여순 이북, 북으로는 시베리아 접경 흑룡강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말한다. 이 지방을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만주라 부른다. 압록강 맞은편을 서간도(西間島), 두만강 건너편을 북간도 또는 동간도, 요녕성(遼寧省 구 奉天省) 일대와 길림성 남부를 합해 남만주, 길림성 북부와 흑룡강성을 합해서 북만주라 부른다. 본래 만주는 역사적으로 우리들의 땅이었으나 발해(渤海)국 멸망 후 만주족(女真族)들이 차지하고 한족(漢族)들이 지배하게 되어 우리들의 통치권에서 밀려나 버린 곳

이다. 일찍이 의주의 청년들이 만주에서 로스와 매킨타이어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던 과정에서 김청송(金靑松)이라는 만주 청년이 식자공(植字工)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가 1882년 식자공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매서인이 되어 고향 죽안현(輯安縣) 한인촌(평북 강계의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돌아와서 쪽복음을 뿌리며 전도하여 많은 한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만주에서 생긴 첫 기독교 공동체였다.

일제는 한국을 병탄한 후 집요하게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농토를 갖가지 수단으로 탈취하였다. 따라서 농토를 잃은 농민들 중에 한없이 넓은 들에서 농사하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정든 고향 산천을 등지고 굶주린 처자식들을 이끌고 이역만리 만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들 동포들이 몰려가는 만주 땅에 신자들을 돌보고, 전도하기 위해 전도인들을 파송하였다. 만주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된 발상지라고 볼 수 있다. 일찍이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파송한 존 로스와 존 매킨타이어를 통해 의주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한 사실은 앞서 상술하였다. 이미 이곳에 거주하던 우리 동포

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 받은 사람들이 늘어갔으며,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 후 각 선교부가 내한하여 활동하던 중 함경도 지방에서 사역하던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 그리어슨(R.G.Grierson 具禮善)이 1902년부터 북간도와 해삼위(블라디보스톡) 일대에서 선교를 시작하였고, 1906년에는 록(A.F.Robb, 鄴亞力 1872-1935)과 푸트(W.R.Foote, 富斗一), 스코트(W.Scott, 徐高道) 등의 선교사들이 만주 각지에서 전도를 계속하였다.

우리 동포들은 가는 곳마다 언제나 교회를 설립하였다. 장로회 제5회 총회록에 만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삶의 모습을 “..... 교인들이 조합하여 토대를 사고 문저 생배당을 건축하고 그 후에 각각 지기의 집을 건축한 일도 있으며.....”라는 기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는 지역 분할 정책에 따라 경남 지방을 호주 선교부에 이양한 후 그곳 선교 시설을 호주 장로교회에 매각한 대금 일부를 만주 선교 기부 건설에 사용하면서 만주 선교에 기여하였다.

만주 선교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1910년 장로교 독노회 평북 대회에서 서간도 지역 선교를 청원하면서부터였다. 노회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 그해 김진근(金振根) 목사를 파송하였다. 만

주의 중심이 되는 봉천(奉天: 현재의 瀋陽) 지방 선교는 1913년 김관필(金寬弼), 장죽섬(張竹燮) 등이 중심이 되어 그 지역에 있는 교인 수십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물론 예배당도 없고, 교역자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이끌고 나갔다. 본래 이 지역은 평북노회 소속으로 있다가 후에 산서노회 관할로 넘어가게 되었다. 1914년 선전읍교회 여전도회가 그 곳 노회를 경유, 선교비를 부담하여 김덕선(金德善) 목사를 봉천에 파송하여 선교하게 하였다. 그의 평북노회에서 선교사 몇 명을 파송하여 전도하였으며 34개 처의 교회가 세워졌다.

1915년 평북노회가 최성주(崔聖株) 목사를 서간도에 파송하였고, 같은 해 장로회 총회에서 김내범(金範範) 목사를 북간도에, 1918년에는 이지은(李枝恩), 한경희(韓敬禧), 최봉석(崔鳳奭) 목사 등을 서간도에, 백봉수(白奉守) 목사를 북간도에 파송하여 큰 부흥을 일으켰다. 심양 지역에 교회가 부흥되어 교인이 250명으로 늘어나자 의산노회 부인전도회에서 1926년 중국 각지를 다니며 전도하던 백영엽(白永燁) 목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돌보게 하던 중 같은 해 5월에 서탑(西塔) 중앙에 벽돌 건물 2층으로 된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만주 선교는 많은 우리 동족 선

교사들의 순교의 피 위에서 있었다. 북만노회장 권중흥(權重興) 목사의 통보에 의하면 총회가 파송한 한경희 목사는 1935년 공산당 비적에게 총살당하여 오소리 강에 버려져 순교하였던 사실은 이미 언급한바 있다.

1936년(25회 총회) 광주에서 모인 총회는 산동 선교사 증원과 만주 선교 개척안을 결의하고, 이듬해 4월 방지일 목사는 부친이 선교 사역을 하던 산동성으로, 그리고 최혁주(崔赫宙) 목사는 만주로 파송되었다. 최 목사가 “신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그의 부친과 친동생은 1933년 만주인의 손에 피살되었다. 이 사건을 김린서 목사는 자기 아버지와 동생을 죽인 만주인에게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며 “우리 선교사상의 광채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지역은 1921년 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의 허락을 받아 압록강 이북의 재만 한국인 교회들을 관할하는 남만(南滿)노회가 설립되어 독립노회를 만들었다. 같은 해 12월 역시 총회의 허락을 받아 간도노회 (1925년 東滿노회로 개칭)가, 1931년에는 북만노회가 남만노회에서 분립 조직되어 넓은 만주는 3노회로 나누어 관리되었다. 그 후 1935년 남만주의 철도 일대를 관할하는 봉천(奉天)노회가 서탑교회에서 창립되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그림카드
가방과 노트
마그네틱 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 up \$20 up
매직스트레이트 \$1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12-18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중략)...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재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역사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부르심, 회개, 중생,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얻은 성도는 그 인생의 사는 목적이 하늘나라 가기위한 목적으로 육신이 영적인 임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희생할 줄 아는 영성체질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양태를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1.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빌립보교회는 자주물감장수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세웠습니다. 그 빌립보교회는 사도바울이 꽤 오래 머무르면서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체질신앙이 어느 정도 훈련받고 길들여진 교회였습니다. 사도바울이 마케도나로 가서 데살로니가교회를 세울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만이 선교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빌립보교회가 사도바울의 복음사역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같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생각은 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겼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볼 때에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미를 잘 살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 바울과 같은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예수님의 안내자라고 증거 하실 때, 세례요한은 오로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에 가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지금 잘 믿고 살아 있는 세례요한 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신앙은 아직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미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장 완성된 신앙인으로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가 잘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천국 들어가기까지는 원수마귀들의 유혹과 위협, 여러 가지 고문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적인 믿음이 혹사라도 육적으로 돌아서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그 인생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 항상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2. 영혼구원이 소원인 교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말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6-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신 것도 됐고, 아들도 모신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13절)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뜻이므로 신적작용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 그 남은 인생의 목적과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원으로 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난 때문에 신앙이 휘청거리는 형제에게 100만원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한 것이며, 전달 된 것은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는 입장이지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을 위하여서 서로 주고받고 이끌어주고 할 때 절대로 다툼이나 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 목자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

이러한 개인과 신앙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15절) 그렇게 살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전혀 없고, 저 사람에게에는 예수님뿐이구나. 저 사람에게에는 예수님만 보여지고 전달되고 느껴진다.’ 이것이 곧 나를 통해 예수님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지게 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럴 때 나는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생명의 말씀이 밝혀집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나의 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담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즉, 빌립보교회를 위하여 목

회하고,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사도바울 모습입니다.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16절) 믿음이 성숙되고 영적으로 무르익은 성도들은 그들의 소원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만 돋보여지고, 느껴지고, 전달되어지도록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훗날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복음화 시키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화되도록 애써 이끌어주었던 사도바울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목양한 사도바울에게 예수님은 ‘너도 참 애 썼구나!’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께 이 한 마디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온 것입니다.

그 다음 결론은 참 목 메이는 구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재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빌 2:17-18)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릴 때, 그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 포도주와 고기가 뒤섞이게 되어서, 함께 타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지도록 드리는 제사를 관재라 하여, 부을 관(灌)자로 씁니다. 빌립보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 남은 생애, 하나님이 살리시는 날 동안, 순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 구원하고자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서 복음의 제물 된다면, 그 제물위에 사도바울 자신의 생명의 피를 함께 쏟아 너희와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싶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빌립보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간절한 소원의 심정이었습니다. 성은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향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미국 대선에 대한 단상(上)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정교분리 원칙, 기독교적 자세

트럼프가 보수 정권이라 맹목적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선한 영향력 정책에 반영시킬 소지 보이기 때문 허락된 범위 안에서 권세자들 평가하는 절제된 지혜를

◆교회와 대통령: 한국 개신교계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

미국 대선 투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지난 14일부터 2주 넘게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언론에서는 박빙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 대선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동북아 정책이 우리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군사, 외교, 경제 정책 전반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하는 한국 정부에게 있어, 그리고 그 정책에 우리의 생존을 내맡기고 있는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덜 침해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국 기독교인들이야 당연히 기독교 신앙과 윤리를 조금이라도 더 존중하는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일 것이다.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만 아니라 문화에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행정수반과 내각이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우리 일상에 전해지는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 역시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성을 띠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선에서 한국 개신교계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계속되는 허언들과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 바이블벨트의 압도적인 지지를 힘입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독교 윤리와 가치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국 개신교계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리빙메이트인 펜스 부통령의 확고한 기독교 윤리관 역시 이런 추세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커다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의 보수정권에 대한 한국 기독교계의 응원과 지지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라는 진영 논리가 끼어드는 것이다.

사실 이런 오해는 한동안 한국 기독교계 내에 지배적이었던 민족주의 성향, 반공주의 성향에 일정 부

분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성향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만 매도할 수는 없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 기독교회는 만주, 간도, 북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신앙의 터전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잔혹한 고문과 학살로 희생된 기억을 갖고 있다.

휴전협정 직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개척된 교회 다수는 이 비극적인 체험을 간직한 피난 성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영락교회가 대표적이다.

이 교회들을 개척한 목회자들이 설교단에서 민족 통일과 반공 사상을 강조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자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의도적인 장려와 지원이 한몫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계 내에 하나의 폐단이 싹트게 된다. 바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는 정서가 목회자들 사이에 고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교회와 권세자: 성경적 절제가 필요한 기독교인의 권세자 판단

이런 폐단이 한국교회에 쉽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또다른 이유로는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의 개혁주의 신학 편향을 들 수 있다.

독일 루터교 신학이나 웨슬리의 감리교 신학과 달리 칼빈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와 권세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소 모순적이라 할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한다. 칼빈 신학은 기본적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칼빈 본인의 제네바 목회는 정교일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기독교 강요> 안에서 여실하게 확인된다. 문제가 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1절에서 철저한 정교분리 원칙을 선포한 뒤, 20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된 진정한 종교에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모독을 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정부를 시인한다.”



제네바바스티옹 공원에 세워진 종교개혁자 석상. 왼쪽부터 파렐, 칼빈, 베자, 녹스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이 진술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의 정교분리 원칙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칼빈 본인은 제네바 시 수석 목회자로서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것은 칼빈 본인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에 사실상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칼빈은 그 정도의 영향력 없이 종교개혁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당대의 현실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권세자 역할을 맡았던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기독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 그리고 제네바 시에서 칼빈의 실제 목회 방식은 기독교 세계가 확립되어 있는, 이제 막 중세를 벗어난 서유럽의 특수한 사정을 심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이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한 모범적 목회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적 목회 행태를 답습할 수 있는 환경이 휴전 직후 이승만 정권 하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방적 기독교 옹호 행태는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정교분리 원칙을 묵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이런 폐단이 오늘날까지 고착되어 문제시된 대표적인 사례로 전광훈 목사의 여론몰이를 들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정사와 권세에 소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은 온당하고 바람직하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양심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계에 뛰어들어 사회변혁을 꾀할 수 있다. 19-20세기, 인종차별 철폐와 노예 해방, 여성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모범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기독교회를 지원했던 그의 행적은 훗날 한국교회에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게 만드는 폐단을 낳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주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가, 그것도 자기 교회 회중을 선동해 정치세력으로 변질시킨 전광훈 목사의 행각은 정교분리 원칙에 전적으로 어긋난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무모하게 집회를 강행해 한국교회 전체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우매함과 그의 비성경적인 허언들은 철저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광훈 목사의 투쟁 활동을 비기독교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회자는 설교단에서 정사와 권세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감행할 수 있는 성경적인 권한을 갖지만(고전 6:2) 직접 정치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다. 이는 목회에 헌신해야 하는 직임의 한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기독교인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려 한다면, 평신도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임명 혹은 선출) 정계에 진출해 활동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나 마

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모범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한 한국 개신교계의 전반적인 정서와 반응을 바라보면,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 안팎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오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정권이 단지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일정 부분 정책에 반영시켜줄 소지를 보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지지하고 기대하는 정서와 행태가 성경에 정해진 정교분리의 원칙적 기준을 넘어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 거부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역사적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경제적으로 별다른 실책이 없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각종 경제 지표들을 양호하게 지켜낸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지 언론의 분위기로는 바이든 후보의 압승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한다.

누가 당선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권세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절제된 지혜를 갖추는 일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한국 개신교계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마이클 펜스 페이스북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과 광복절 기념 행사(1948.8.15), 한국 기독교화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정치지도자 이승만 전 대통령.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기독교회를 지원했던 그의 행적은 훗날 한국교회에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게 만드는 폐단을 낳았다. ©대통령기록관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다름은 불편이 아닌, 특별함의 열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는데 필요한 조건 네 가지



다름수록 좋다
김명철
샘터 | 178쪽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묻다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나요?”

김명철이 답하다

“가장 개성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입니다. 다른 것에 길이 있습니다. 다양성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옵니다. 파랑새를 쫓지 마세요. 내 안에 있습니다.”

평범한 것 소중히 여길 때, 특별한 삶 가능해
모차르트의 평범한 일상, 특별한 작품 만들어
우리의 평범함이 어떻게 특별함으로 바뀔까

평범한 것이 소중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범한 것보다 특별한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평범한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면, 특별한 삶을 살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범하다는 것에 실망한다. 발달심리학의 대가 캐럴 드웬은 이런 현상을 ‘실체 이론’이라고 한다.

‘실체 이론’이란 우리의 능력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훈련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 평범한 것은 결코 특별해질 수 없다는 신념이다. 그래서 평범한 것을 버리고 특별한 것을 찾고자 애쓴다.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는 신동으로 유명하다.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예로 들며 특별한 재능은 타고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특별함은 평범함에서 나왔다.

모차르트도 처음부터 실력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모차르트의 초기, 중기, 말기 작품 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 우리가 애정하는 모차르트의 작품은 대부분 그가 죽기 5년 전부터 작곡한 곡들이다.

모차르트는 35년의 생애 대부분을 작곡가로 살았다. 평범한 그의 일상이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다름수록 좋다》는 우리의 평범함이 어떻게 특별함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저자는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변하는 비결은 ‘연합’이라고 말한다.

한 가지만 놓고 보았을 때 평범해 보이는 것도, 연합할 때 특별함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미셸린 가이드는 원래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해 각국의 도로, 주유소, 타이어 교체 장소, 숙박시설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잘 다니도록 해야 타이어도 잘 팔릴테니 타이어 회사에서 가이드북을 낸 것이다. 여기까지는 평범하다.

첫 가이드북이 나온 지 20년이 좀 안 되었을 때, 미셸린 가이드에 레스토랑 정보가 실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나고 우리가 잘

아는 미셸린 별점이 등장한다. 1점짜리 식당은 좋은 식당이라는 뜻이다. 2점은 여기 방문하기 위해 길을 돌아갈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3점은 오직 이 식당에 가기 위해 여행을 계획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미셸린 가이드는 타이어 회사의 운전자 가이드북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프랑스 미식 문화를 연합하여 만든 세계 최초의 미식 가이드북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 분야에서 특별한 명성을 누리고 있다.

저자는 “연합은 아직 뚜렷하게 관련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지식과 개념과 노하우를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개념과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잘 하는 분야에서 연합해야 특별해져
다른 개성이 협력할 때 불꽃 일어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해도 그 안에 들어간 기술은 다양하다. 터치 기술, 디지털카메라 기술, 반도체 기술, 와이파이 통신 기술, 프로그래밍, UI,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의 기술이 들어간다.

자신이 잘 하는 분야에서 연합해야 특별해질 수 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그룹 정희선 수석부회장이 엘지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핵심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에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연합은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설명하는 일반상대성이론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방법이 필요했다. 아인슈타인은 그 방면에 무지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곡면 수학에 정통한 수학자인 마르셀 그로스만과 함께 10년을 연구했다.

저자는 서로 다른 개성이 모여서 협력할 때 비로소 불꽃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하이든과 모차르트와 베토벤도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모차르트와 하이든은 서로를 존경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친구였으며 베토벤은 하이든의 제자였죠. 창조적인 인물은 저 혼자 탄생하지 않습

니다. 다른 창조적인 인물과 교류하고 자극을 주고받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연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저자는 서로 연합하는데 필요한 조건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동료가 되는 것이다.

“동료 관계란 각자의 개성과 훈련을 살려 협력에 임하는 수평적 관계를 지칭합니다. 그 사람의 개성과 훈련을 존중하며 동등한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먼저 다가가 말 걸기다.

“다가가 말하는 행동은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 동료들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개성은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셋째, 실패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창조적인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잦은 실수를 범하고 왕왕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창조적인 일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걸 따라 만드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정착시킨 기법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적인 작업에는 으레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고, 많은 경우 실패가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일

을 할 때는 실수와 실패를 처벌하기보다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움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갈등 해결하기다.

“동료들 간의 갈등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갈등으로 마무리하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 평범함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하면 강해져
다름은 불편함 아닌, 특별함의 열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범함을 무기로 주셨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잘 활용할 때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해진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나약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다. 혼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나와 다름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특별함의 열쇠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찾아요!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0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와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penstewardship.com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Open Stewardship Program

접수기간 2020년 10월 15일 - 11월 25일

수혜단체 발표 2021년 2월 28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내실 곳 Open Stewardship Foundation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오픈청지기재단 | 213.593.4885 |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